

유통업계, 폭우 피해 남부권에 구호물품·성금 전달

쿠팡, 거제 이재민에 생필품 전달
G마켓, 3억원 성금·피해농가 지원
CU·이마트24, 구호물품 긴급 배송

지난 15일부터 경남 남해안 등 남부지방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유통업계가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발 빠르게 팔을 걷어붙였다.

2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경남 거제에 968.1mm, 통영에 778.7mm의 비가 쏟아지며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주택 침수와 단수 등으로 거제와 통영 등에서 500명이 넘는 주민이 임시주거시설과 친인척 집에 머물며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해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이커머스 및 편의점 업체는 전국



19일 경남 거제 옥포초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긴급구호 쿠팡희망박스'를 전달하고 있다. /쿠팡

물류망을 가동해 생필품과 식음료를 피해 현장에 긴급 전달하고 나섰다.

쿠팡은 지난 19일 경남 거제시에 '긴급구호 쿠팡희망박스' 200세트를 신속히 지원했다. 세종 풀필먼트센터에서 출고된 희망박스는 옥포초등학교 등 임시거주시설에 전달됐으며 접이식 3단 매트리스, 차렵이불, 수면용품, 세면도구 등 생활 필수

품 10종으로 구성돼 대피 주민들의 수면과 위생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탤다.

G마켓은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3억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성금은 통영과 거제 등 주요 피해지의 시설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수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추석 프로모션 '한가위 벵세일'에서

피해 농산물을 할인 판매하고 경남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특별전'과 마케팅 지원도 병행한다.

편의점 업계도 발 빠른 구호 활동을 펼쳤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국가 재난 긴급 구호체계인 'BGF브릿지'를 즉각 가동해 BGF로지스 진주 물류센터에서 거제시청으로 캅라면, 음료 등 1천여 명분의 구호물품을 배송했다.

이마트24 역시 행안부 및 재해구호협회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통영 지역에 음료와 간식 등 5000여 개(1000명분)의 구호물품을 지원했으며, 침수 피해를 본 가맹점의 조속한 영업 정상화를 위한 장비 선조치와 상생지원금 지급도 추진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21년째 임직원 보양식 선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국내외 임직원 6590명의 가정에 여름철 보양식을 전달하며 무더위 속 노고를 격려했다. 21년째 이어진 보양식 선물을 비롯해 휴게공간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며 임직원 중심의 복리후생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현 회장이 삼복을 전후해 국내 임직원 5469명과 해외 임직원 1121명에게 삼계탕과 소고기 보양식 약 4만인분을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롯데리아, 키오스크 교육 전국 확대

롯데리아가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마실'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롯데리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하는 'AI디지털배움터'와 연계해 올해 8000명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교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롯데리아



현대차, 제주 첫 '판매거장' 탄생

제주 지역 최초의 현대차 '판매 거장'이 탄생했다. 현대차는 김경보 제주변영로지점 영업부장이 제주 지역 최초로 누적 판매 5000대를 달성하며 판매거장에 등극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영업부장은 1993년 입사한 이래 약 34년간 연평균 147대를 판매했다. 지난 2013년에는 누적 판매 3000대, 2018년에는 누적 판매 4000대를 달성했다. 2009년, 2010년, 2012년에는 '전국판매왕'에도 선정됐다.

/현대차



iM금융, 청년 중심 멘토링 활동 후원

iM금융그룹이 지역 청년들의 청소년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사업 발굴에도 힘쓴다. iM금융그룹 iMS사회공헌재단은 지난 19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이 중심이 되는 멘토링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iM금융그룹

2금융권, 수해 피해 고객 금융지원

카드대금 최장 6개월 청구 유예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자 30% 감면

2금융권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을 위해 결제대금 청구를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분할상환과 현금서비스·카드론 수수료 할인도 지원한다.

삼성카드는 피해 고객에게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신용카드 결제 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간 유예해 준다.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이자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자도 최대 30% 감면해 준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과 직계가족까지 범위를 넓혔다. 카드 대금 청구를 1~6개월간 상환 유예하고, 최장 6개월 동안 분할 상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금서비스·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17일 경상남도 통영시 신전리 일대에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수습·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뉴스시스

카드론 이자도 30% 할인해 준다.

롯데카드도 집중호우 피해사실 확인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 추심을 중지한다. 분할 상환과 연체료 감면도 지원한다.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자도 30% 깎아준다.

현대카드는 카드결제 대금과 현금서비스·카드론 잔액 청구를 각각 최장 6개월간 유예하고, 장·단기카드대출 이자를 30% 할인해 준다.

/안재선 기자 wotis4187@

LG화학, '명장·전문가' 키워 현장 혁신

LG화학이 생산 현장의 기술 노하우를 축적한 인재를 발굴·육성해 제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공정 개선과 안전 혁신 등 현장 성과를 낸 인력을 명장과 전문가로 인증해 기술 역량을 체계적으로 확산한다. LG화학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에서 김동춘 사장과 장기룡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LG화학 명장·전문가'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LG화학 명장·전문가는 현장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내 공식 인증 제도다. 올해는 김병운 전문과장과 장현정 전문실장이 명장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공정 개선을 통한 촉매 사용량 절감과 부품 국산화 등 현장 과제를 해결한 임직원 12명이 새롭게 'LG화학 전문가'로 선정됐다.

삼성물산 래미안 조경, IDEA 본상 2건

원페를라·잠실래미안아이파크 수상

삼성물산은 래미안 조경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미국 'IDEA 2026' 환경 부문에서 2건의 본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의 '윈드 라이브러리 가든(Wind Library Garden)'과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블루 포레스트 가든(Blue Forest Garden)' 등 2개 작품을 출품해 나란히 본상을 수상했다.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산업디자인협회(IDSA)와 미국 경제 주간지 비즈니스위크가 공동 주최하는 북미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이다.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매년 디자인 혁신성, 사용자 혜택, 사회적 책임, 심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부문별 최고 디자인을 선정한다.

수상작인 '윈드 라이브러리 가든'은 한국의 전통 조경 방식인 차경(借景) 개념을 활용해 작은도서관과 연계한 야외 북카페로 조성한 정원이다.

'블루 포레스트 가든'은 유선형 타하우스와 전망 테크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4개의 위치에서 파노라마 뷰를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정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소진공, 수해 전통시장 찾아 복구 지원 점검

인태연 이사장, 거제 옥포·통영 방문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등을 모색했다.

20일 소진공에 따르면 인태연 이사장은 전날 경남 거제시 옥포시장과 통영 중앙시장을 찾아 침수 피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피해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복구 상황을 청취했다.

소진공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동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현재까지 경남지역 17개 전통시장에서 침수 및 토사 유출로 점포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이 통영 중앙시장을 방문해 점포를 둘러보고 있다. /소진공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 이사장은 시장 뿐만 아니라 통영시·거제시·고성군을 관할 하는 소진공 통영센터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집중호우 피해 현황과 지원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마사회, 하반기 힐링승마 1300명 모집

사회공익 500명·일반국민 800명

한국마사회가 '2026년 하반기 힐링승마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말과의 교감을 통한 국민의 심신 회복과 승마 참여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힐링승마는 승마 활동과 말과의 교감을 통해 일상에서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마사회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승마를 경험하고 말이

주는 치유와 교감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공익 분야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힐링승마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총 2613명에 이어 하반기 모집인원은 사회공익 분야 500명, 일반국민 800명이다. 올해는 특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국 9개 지방국립대 재학생과 전국의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재직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